

**우리 아버지**  
**평화와 안전을 담보**  
**유술명인상을 받은 감독**



# 중추강산

11

주체110(2021)  
루게 제387호 월간



표지: 어머니의 행복

딸에게 맛있는 젓채품을 한가득 안겨주며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는 중구역 동안1동에서 살고있는 김류경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한껏 실려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 . . . . 2

국방발전전람회에서의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 . . . . . 10

우리 아버지 . . . . . 18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 . . . . 26

대 담  
국가가 부담한다 . . . . . 27

부러움을 모르는 원아들 . . . . . 28

평화와 안전을 담보 . . . . . 3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남만으로 . . . . . 42

《봄맞이》기초식품생산자들 . . . . . 44

재자원화체계를 확립하여 . . . . . 46

문 답  
시대를 반영한 작품창작으로 . . . . . 47

원림화된 교정 . . . . . 48



18



3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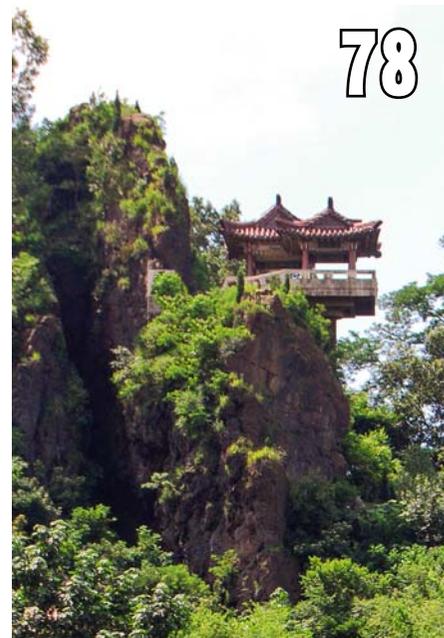
58



62



69



78

박사지배인 . . . . . 54  
유능한 안과전문가 . . . . . 56  
유술명인상을 받은 감독 . . . . . 58

수 기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 . . . . 62

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를 바치라 . . . . . 64

수 필  
락엽은 대지를 덮건만 . . . . . 66

재중동포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뜻깊게 경축 . . . . . 68

11월의 절기와 민속 . . . . . 69

민족의 향기  
가야금, 어제와 오늘을 안고 제작되다 . . . 70

리재관과 《약산초상》 . . . . . 74

함경남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2) . . . . . 75

지명유래  
황해남도의 일부 지명들 (2) . . . . . 76

사 화  
평양에서 울고 간 시인 . . . . . 77

명승 경암산 . . . . . 78

상 식  
친상렬차분야지도 . . . . . 55  
노래와 건강 . . . . . 72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 . . . . 73  
굴포리 서포항유적 . . . . . 74  
조선속담  
버선과 관련한 속담 . . . . . 57  
유모아  
힘이란 무엇인가 . . . . . 7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6돐을 맞는 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우리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전당적인 기념강연회를 조직한 의도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최근년간 여러 중요회의들을 통하여 국가적인 현 실태와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사업을 거듭하고 단기적, 중장기적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포치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집대성한 전략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사업의 성사여부는 우리당이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령도를 얼마나 정확히 보장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무한한 힘을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투쟁방침을 어떻게 접수하고 집행하는가에 따라 해당 단위들의 성과가 좌우되며 그러한 성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증폭되어야 우

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령도력을 발휘하고 힘있는 발전을 주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책임일꾼들에게 이미 제시된 기본투쟁방침들을 종합하여 재침투시키고 현시기 철저히 견지해야 할 사업원칙과 사업기풍, 사업작풍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 전당적인 기념강연회를 조직하였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76년이라는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력사를 새기고있는 우리 당이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면서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억센 뿌리를 가진 우리 당이 창당 첫날부터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내놓고 인민정권의 탄생을 준비한데 대하여서와 자주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견지하면서 수행한 력사적인 혁명들과 거창한 변혁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능숙한 령도로 전대미문의 운명적인 국난들을 뚫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예, 영웅성을 지켜냈으며 참다운 사회주의의 생명력을 립증한 공적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령도의 전 행정에서 가장 큰 공적은 수난받던 약소민족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자존심과 창조력이 강한 위대하고 훌륭한 인민으로 키운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교양육성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을 항상 선행하였기에 격변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사회주의의 진정한 본태를 고수하고 조선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당건설의 길을 개척하고 철저히 견지한데 위대한 백전백승을 이룩해올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분석하시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면 혁명의 참모부인 당자체를 강철의 전위대로로 튼튼히 꾸려야 하며 시대의 변천과 더

불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이 첫 출발선에서부터 당건설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독창성을 발휘하고 자기 발전의 고유한 궤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본질로 규정하고 인민을 위하여 조직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존재명분을 명백히 한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로부터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립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심화발전되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최고강령이 확정되였다고 언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8월 중앙당학교 1년제반 첫 졸업생들에게 써주신 친필에 우리 당의 성격과 작풍이 잘 반영되어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면서 인민을 떠난, 인민과 리탈되고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는 당과 국가사업이란 있을수 없다는 수령님의 친필이야말로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전 과정에 관통된 불변의 지침과 원칙을 집약적으로 담고있는 만고불멸의 대명제이라고 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당건설과 활동에 일관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가 고유한 당풍으로 확립되고 혁명적당건설사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닌데 대하여 긍지높이 평가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강화하는데서도 우리 당의 원칙과 립장은 확고하였다고 하시면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의 령도체계는 본질

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인 사상체계, 령도체계라는것을 명백히 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제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오유와 편향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대와 정치적대를 든든히 세워온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새로운 계승기, 발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을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 향도적력량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되어 당의 지도사상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이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되였다고 하시였다.

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에 따라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이 뚜렷한 계기성과 력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진척되고 발전하게 되였으며 혁명의 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진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정간화, 정예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가 보다 명백해졌으며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보다 강한 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이 당건설과 활동의 기본규범인 당규약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를 혁명적당풍으로 수립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본태와 인민적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어떤 풍파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을 이끌어나가는 전투적참모부, 인민의 진정한 심부름군당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자기의 령도력을 계속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체제와 기틀을 세워놓은것이 지난 10년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앞에는 조성된 혁명정세에 부응하여 당을 더욱 건전하고 강위력하게 건설해야 할 시대적과제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초유의 난관이 겹쌓인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환경과 이를 과감히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당대회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제시한 중대정책과업들의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국가경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대한 목표들은 정확한 발전계획과 과학적인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엄혹한 정세속에서 전례없는 중대사업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전당이 일치단결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로선과 투쟁원칙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당적지도를 집중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과업들은 당조직이 발동되고 군중이 떨쳐나서면 능히 수행할수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실속있게 수행한다면 우리의 전진은 지금보다 몇배나 더 빨라지고 우리 인민들이 고대하는 더 좋은 래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꾼들이 당중앙과 공화국정부의 기본투쟁로선과 방침을 똑바로 알고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불가항력적인 백전백승의 힘인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당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것은 우리 당이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정치적성파라고 하시면서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 확고하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되였으며 당중앙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조선로동당의 힘은 그 어떤 역경과 도전도 타개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196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당건설의 최우선과제로 심화시켜왔다고, 오늘 세계만방에 빛나는 우리 당과 국가의 높은 권위와 위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승리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우리 국가를 부흥발전시키고 수천만 인민을 부럽없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도 여기에 있다고 언명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위력인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목숨과 같이 옹위하고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 이 나라 공민들의 신성하고도 마땅한 의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리상적인 목표는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다시말하여 온 나라가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현시기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에서 나서는 요구를 똑바로 알고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당내부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내부사업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과 혁명의 운명과 직결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조성된 주객관적형세와 우리앞에 제시된 방대하고도 무거운 투쟁과업은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어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시대의 변천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어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당대렬을 정예화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변화되는 환경과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장악사업과 검열지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검열지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조직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상건설은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라고 하시면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야만 하고 오직 자력으로 부국강병대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사상은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사회적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오늘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보다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최근년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풍, 국풍, 사회적기풍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우리 국

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져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과 자긍심, 애국열의가 승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사상사업은 언제나 중대시하고 최대의 품을 들여야 할 당사업의 핵심사항이며 그 위력을 높이는데서는 한계점이란 있을수 없다고 지적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상사업실태를 엄밀히 분석해보고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요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사상사업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강도를 높이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의 기본요구로부터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사업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문제,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심도있게 꾸준히 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의 혁명사상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신조로, 사고와 활동의 절대적기준으로 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 5대교양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시였다.

특히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고 미래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신념교양을 강화

하는데 주목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원리적으로 해설선전할데 대하여서와 당조직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 전개하여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인민들이 폐부로 실감할수 있게 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집단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숭고한 집단주의정신과 기풍이 높히 발양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언제나 중시하여야 할 과업의 하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 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직접 맡아 주관하는 각급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집행대책을 세우고 아래에 대한 지도를 부단히 심화시켜 온 나라가 3대혁명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명시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 발전하는 시대적추세에 부합되면서도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과 특성에 맞는 새롭고 참신한 사상사업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적용할데 대한 문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자기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화예술부문이 분발하여 하루

빨리 새로운 혁명의 불길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전임당선전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당사상사업의 전진을 위한 제반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모든 당책임일군들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실태이자 곧 자기가 책임지고있는 당조직과 자신의 지도수준과 능력이라는것을 인정하고 분발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눈에 띄이는 개선을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는 정치적 지도, 정책적지도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하게 견지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의 경제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당조직들이 방향타의 역할을 잘하며 이를 위하여 당위원회를 옹호 운영하고 집체적협업, 집체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제사업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기본인자는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이라고 규정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과업수행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후방사업을 따라세워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며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의 경제정책집행에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도, 시, 군당책임비서들이 법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가 당사업의 중요한 부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적지도를 잘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지도사업의 모를 박으며 근로단체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각방으로 지도방조하여 동맹조직들이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책임일군들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건전한 사업기풍을 유지하고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고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정확히 집행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투쟁기질과 투쟁기풍으로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투쟁강령과 로선, 정책들을 관철하는데서 당일군들부터 투쟁기풍과 혁명적기질, 사업작풍을 일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이 누구보다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정치의식을 높일데 대한 문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체질화, 습벽화할데 대한 문제,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한 전통적인 우리식 사업방법들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당사업에서 인민성을 견지하며 건전한 도덕풍모를 소유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무해나가는 어머니당, 인민의 심부름군당인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은 당조직과 당일군들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전달침투되며 당의 존엄과 권위, 모습도 당일군들의 품모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비쳐지게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는데서 응당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사업을 하나 조직해도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를 늘 따져보아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인민들의 립장에서, 인민들의 편의보장원칙에서 대하고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람들의 스쳐지나는 말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새 일감을 찾고 인민들이 아파하고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애쓰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당일군만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일군들이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라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강조해오고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들을 철저히 경계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인민들을 존중하며 자기를 무한히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군이라면 사상에서 투철할뿐 아니라 도덕품성에서도 최고인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것이 당중앙의 요구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만과 자찬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것은 일군들의 변질을 막고 사업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방책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하루사업정형을 자체로 총화해보면서 오늘 계획한 일은 다했는가, 사업에서 놓친것이 없는가, 처신을 바로하지 못한것은 없는가를 늘 돌이켜보면서 채찍질해나가는 당일군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은 일군일수록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고 항상 각성하며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책임일군들이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데서 모범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는 중앙당 부서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부서들이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이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가 설정한 5개년계획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번모시키는 대번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련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이 성스러운 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혁명의 향도적력량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당의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위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심을 간직하고 고생앞에 무한한 공지와 보람을 느낄줄 알며 인민의 웃음소리에 행복할줄 알고 인민의 사소한 불편도 제일 아파할줄 알며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는것을 마땅한 도리, 무상의 영광으로 아는 참된 당일군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에는 천만인민의 소중한 믿음이라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고 굳건하고 단결된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가 향도하고 고무해주는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전환될 위대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 \* \*

#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

주체 110(2021)년 10월 11일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직접 한눈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선진성과 현대성, 영웅성이 응축된 국방발전전람회에 참가한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올해의 우리 당창건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경축하고 이채롭게 빛내이게 하고있습니다.  
 이번 국방발전전람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

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국방정책과 그 빛나는 생활력이 집대성된 오늘의 성대한 전람회는 대규모열병식에 못지않게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국력시위로 됩니다.  
 동지들!  
 변화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 그리고 세계적관도에서의 군사력의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상응하여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더욱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할 막중한 역사적사명을 걸머지고 우리 당이 지난 5년세월 필연코 단행해야 했던 사생결단의 국방공업혁명의 길, 미지의 생눈길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엄축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뿌듯한 희열의 순간들이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지난 5년간의 국방력발전로정은 그 한걸음한걸음이 당과 조



국, 인민들과 후대들앞에 더없이 떳떳하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보람넘친 혁명의 길,

애국의 길, 위대한 승리의 려정이였습니다. 여기 전람회장에 준비하게

늘어선 지난 5년간 이루어낸 무장장비들을 무심히 볼수가 없습니다.

쏟아보고 만져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커지는 소중한

우리의것들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것을 발악적으로 두려워하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더욱 혹독한 고생과 시련을 각오하면서도 우리 당의 국방강화정책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전체 인민의 믿음

과 열렬한 조국애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낼수 없었을것들입니다.

저 무장장비들마다에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우리 당을 따라서 국방건설의 길에서 전신만고를 헤쳐온 정녕 잊지 못할 많은 사연들이 깃들어있으며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희생적으로 투쟁한 그들의 진한 피와 땀방울이 스배여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항상 우리 당의 그 어떤 요구와 결심도 무조건적으로 절대지지하고 결사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국

방력강화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공화국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고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을 풀어주는 특출한 최신성과들을

이룩하는데 공헌한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동지들과 전체 군수로동계급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전체 인민의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또한 전체 인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번 전람회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는 승리자들의 전람회, 국방부문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격려와 고무의 전람회,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더 빠르고 더 힘찬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진취적인 전람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동지들!

우리당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입니다.

력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민족사의

교훈과 조선혁명의 요구와 특수성으로부터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로 되고있습니다.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동서고금의 세상리치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군사기술과 무장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작전양상과 지역마다 국가들의 안전환경은 변화되고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적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앞에 조성된 군사적위협성은 10년, 5년전 아니 3년전과도 또 다릅니다.

앞에서는 평화 그리고 협력과 번영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빈번히 벌려놓는 각이한 군사연습들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알수 있고 최근 들어 도가 넘을 정도로 로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현대화시도를 보



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환경이 변화될 래일을 쉽게 짐작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합동 타격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방대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자기 군대의 전투력을 갱신해보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체의 국방기술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각이한 탄두개발, 사거리제고 등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미사일능력향상을 비롯하여 잠수함전력강화, 전투기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군사장비현대화시도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같이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태도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심지어 우리의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목소리를 솔선 선창하는데 나서고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전용술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에 불법무도한 유엔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밑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의 위선적인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는 북남쌍방간 감정정서를 계속 훼손시키고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무제한적인 위험한 군사력강화시도들은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균형을 파괴시키고 군사적불안정성과 위협을 더 키우고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밑에 군사력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여러 계기에 숨김없이 드러냈으며 어김없이 명분으로는

우리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구실을 내들였습니다.

우리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제한것 자체가 겉으로는 아닌척 해도 숨길수없이 뼈속 깊이 체질화된 반공화국적대심의 집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이같은 과욕적인 야심과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남조선과 설전을 벌릴 일도 없을것이며 그럴 리유도 없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삼 밝히지만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지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하루 빨리 남조선당국과 전반적인 남조선사회의 대조선관점이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고민과 몽상적인 사명감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를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랭정하고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문제로 되는 남조선의 과도한 군사적비만증과 과욕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조종밑에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정치적인 환경변화는 많은 전망적인 위험을 배태하고있으며 우리가 더욱 강력한 실제로 변해야 할 절박성을 제기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수 있는 행동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 집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있습니다. 명백한것은 조선반도지역

의 정세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때문에 쉽게 해소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미루어볼때 지금 우리가 국방력강화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에 자만도취되어 발전의 길에서 잠시나마 발걸음이 뒤쳐지고 한숨돌려간다면 지역의 군사적균형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우리 국가는 더욱 좋지 않은 안전불안과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정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됩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자만과 담보도 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종혁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위력이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렬한 행위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화가 깃들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포기는 아닙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5개년계획기간 제2차 국방공업혁명을 수행하여 우리가 틀어쥐 군사기술적강세를 더욱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데 대한 구체적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련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전술적수단들의 개발생산을 더욱 가속화

하는것을 기본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믿는것은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여이 창조해내고야마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 동계급의 굴함없는 혁명정신과 특출한 애국심, 비상하고 총명한 두뇌와 재능이며 장기간의 고난속에서 억척같이 다져놓은 위력한 군수공업로 대입입니다.

첫단계의 국방공업혁명의 나날에 우리 당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충실성과 실력, 매 단위들과 인재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결사분투하는것을 체질화한 미더운 혁명전사들이 있는 한 국방력강화의 첨단목표들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히였습니다.

이러한 신심을 더 억세게 해주고 새 단계의 승리를 락관하게 해주는것은 당중앙이 구상하면 언제나와 같이 창의적인 방도로 당의 의도를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창조형의 젊고 쟁쟁한 과학자대

군이 있는것입니다.

이 젊은 재사들은 우리 국방공업부문의 현재와 전도를 든든히 떠받드는 역군이며 당과 국가의 큰 힘입니다. 또한 언제나와 같이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수로동계급이 있습니다.

당은 우리 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위적인 국방력은 계속 변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굳건한 의지와 정확한 령도가 있고 당과 혁명에 무조건 충직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의 정당한 애국위업수행에서는 더욱 빛나는 성과들이 쟁취될것이고 하여 더욱 확고하고 더욱 완비되고 더욱 강해진 전략적힘, 전쟁억제력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가 국방발전전람회를 크게 진행하는 진목적은 이를 계기로 하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을 고무하고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려는데도 있지만 기본은 나라의 국방력발전을 더 힘있게 추동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의 방위력을 혁명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럽게 키워온 영광스러운 국방공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반세기 넘게 피와 땀을 고여온 그 강인한 노력과 이룩해놓은 발전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디디고 더 높이 비약해 뛰어오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발전정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에 토대하여 각 분야의 비약적발전을 구상, 설계하며 지금까지 축적된 우수한 경험들을 교환, 공유하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에 더 빨리 올라서기 위한 방략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 전략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백배천배 더 용기충천하여 국방발전에 기여해나가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혁명의 요구와 정세형편을 동지들에게 그대로 다 러놓고있으며 동지들의 견실한 자세와 애국충정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곱씹어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림없는 최종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드림없는 의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동지들은 우리 국방공업부문이 쟁취한 거대한 성과에 비추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실태를 랭철하게 돌이켜보고 당과 국가, 인민앞에 앞으로 어떤 실적을 내놓겠는가를 다시금 결심해야 할것이며 우리 국방공업이 더 발전할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경제적사정이 의연 어렵고 다른 부문들에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시간을 다루는 중대한 과업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국방력강화의 중차대함을 잊지 말

우선적발전을 떠난 우리 혁명의 그 어떤 발전과 성과도 생각할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 당과 정부의 대내외정책들의 성과적추진을 기대할수 없으며 나라의 안정과 평화환경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전체 인민들도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따라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보아야 합니다.

우리모두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필승의 신심과 자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갑시다.

우리의 긍지스러운 군사력을 가까이 체험하는 오늘이 이 행사에 오신것을 다시한번 환영합니다.

\* \* \*

# 우 리 아 버 지

조국의 모든 유치원, 탁아소에는 이런 글밭이 나붙어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한 나라의 령도자를 아버지로 스스로없이 부르는 조국의 어린이들.

몇해전 5월 어느 한 종합병원에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린이들이 입원한 호실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간호원의 선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던 10여명의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듯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호실에는 가정적분위기가 차넘쳤다.

주체103(2014)년 2월과 6월, 그 이듬해 정월과 6월...

이러한 화폭은 많이도 펼쳐졌다.

아버지!

단순히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가 아니다. 자식을 안아주고 보살펴주며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운명을 책임져주는것이 아버지이다.

아직은 감정과 의사를 언어에 충분히 담지 못하는 철부지들이건만 자기들에게 진정을 부여하시는분이 과연 어느분이신가를 잘 알고있기에 아이들은 그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그이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다.

주체104(2015)년 새해 첫아침 그이께서는 새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그날 육아원부터 먼저 돌아보자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앞마당에 고무갈판을 깔아놓은것은 좋는데 접착제로 붙이지 않은것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6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주체104(2015)년 촬영

이 결함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계절에 따라 늘었다줄었다 하면서 모서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원아들이 뛰어놀다가 깔판의 모서리에 걸려 넘어질수 있다고 보육원들을 일깨워주시었다.

이어 식사실에 들리시어서는 원아들이 밥먹을 때 도덕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것도 가정교양령역이라고, 원아들에게 올바른 도덕품성과 창발성, 자립성, 독자성을 키워주어 그들속에서 인민군대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며 영웅도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보육원, 교양원들이 어머니다운 프

거운 사랑과 함께 높은 교육자적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육친적사랑은 비단 원아들의 세계에만 어려있는것이 아니다.

어느해인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궁전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개건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며 세상에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개건된 궁전을 또다시 찾으시어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며 참으로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였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오늘에 울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가 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는것이기때 당에서는 천만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동해기슭에 자리잡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도 무심히 대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야영소를 제일 훌륭한 과외교양기지로 전변시킬것을 발기하시고 건설현장을 거둬 찾으시여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로 일떠세우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그이의 관심속에 야영소는 극장과 유희오락실들, 실내체육관, 야외물놀이장, 수족관과 조류사를 비롯하여 학생소년들이 풍부한 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훌륭히 갖추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 주체105(2016)년 촬영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과외소조들에서 재능을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 주체108(2019)년 촬영



평양초등학원의 원아들 주체106(2017)년 촬영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원아들이  
원산육아원, 원산애육원의 준공테프를 끊었다. 주체104(2015)년 촬영

되었다.

그이께서는 야영소준공식날에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학생소년들과 함께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와 예술인들의 축하공연, 밤하늘가에 펼쳐지는 축포도 함께 보여주셨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

시고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현지도자육은 전국의 곳곳에 수없이 어리어 있다. 재간둥이들이 자라는 경상유치원과 룡악산기슭의 만경대소년단야영소, 하늘아래 산간도시의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옥류아동병원, 평양아동백화점 그리고 평양가방공장과 민들레

학습장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과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

그렇게 찾으신 곳마다에서 그이께서는 아버지라 부르며 안겨드는 어린이들과 허물없이 어울리시며 꼬마 《의사》에게서 《진찰》도 받으시었고 잠자는 아기의 포단을 뽀뽀 하며 주시며 잘 자라고 다심히 속삭여도 주시었다. 그리고 공장들에서 생산한 갖가지 학용품들을 보여주시며 손수 학생들의 가방도 메어보시고 학습장에 글도 써보시면서 제품들의 질을 가늠해보시었다. 때로 차디찬 바다바람을 맞으시며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신 그이이시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후대들에 대한 생각이 짙차있는듯싶다.

그래서인가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자랑을 담아 올린 편지들을 보시고서도 《리향아》, 《준혁아》라고 다정히 부르시며 백점, 만점이 라고 치하도 해주시고 손수 빨간별까지 그려주기도 하시었다.

이 모든것이 결코 세월의 순탄한 흐름속에서 펼쳐진것이 아니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의 연단에서 하신 그이의 말씀이 들려오는듯싶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안아오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왔는가고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우리가 일은 힘들게 하였지만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혁명을 하는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그래서였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위해,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를 즐겁게 들으시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조국수호의 전선길, 부강조국건설의 현지도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었다.



새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주체106(2017)년 촬영



마식령스키장에서 겨울철야영을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 주체108(2019)년 촬영



자연관찰시간에 주체108(2019)년 촬영



그이께서는 올해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을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내세우시는 그이이시다.

진정 그이는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희망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가고 있다. 주체108(2019)년 촬영



국제콩쿨들에서 이름을 떨치고있는 조국의 어린이들

# 위민헌신의 나날에

꼬마 《의사》의 진찰도 받으시며

복받은 형제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의 경상유치원을 찾아주시었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 2층에 있는 종합놀이장에 들리셨을 때 어린이들은 한창 여러가지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의사놀이하는것을 보시였다.

제법 하얀 위생복을 입고 청진기까지 멘 꼬마 《의사》가 다른 아이가 안고온 아기인형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고있었다.

귀여운 어린이들의 의사놀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꼬마 《의사》앞에 다정히 앉으시여 맥박과 혈압을 재보라고 하시였다.

꼬마 《의사》는 기뻐하면서도 맥박, 혈압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이를 말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이께서는 교양원들에게 이럴 때에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가고 다정히 물어보시였다.

교양원이 《진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꼬마 《의사》에게 그림 자신도 한번 진찰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에야 그 아이는 스스로없이 청진기를 대면서 그이께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하고 의사처럼 물어보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의사》의 귀여운 물음에 자신께서 건강한가고 물으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수행한 일군들과 교양원들에게 이애들은 자기 또래들과 놀 때에는 허물없다가도 지금 환경이 이상한것을 느끼고 이런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따듯이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정녕 자애로운 아버지를 모신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방불케 하는 뜻깊은 화폭이였다.

주체101(201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창전거리살림집에 입사한 집주인 박승일의 가정도 찾아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박승일의 둘째아들 훈이의 볼도 다정히 다독여주시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몇살인가 물어주시였고 아이들의 방에 들리시여서는 훈이가 그린 《좋은 일을 하는 동무의 모습》이라는 그림도 몸소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장두장 책장을 번지시며 훈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을 보아주시다가 여기에다가는 빨간 꽃과 노란 꽃을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는 형님의 다리도 그리며 옆에 누나도 그려넣으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만아들이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말에 서운함을 금치 못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박원이가 집에 들어서자 어디에 갔다가 늦어왔는가고 반겨맞아주시며 그를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박원이는 축구소조에 갔었다고 씩씩하게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박원이의 결의를 만족하게 들어주시며 그의 앞날도 축복해주시고 두 형제에게 친히 준비해오신 《세계명작동화집》도 안겨주시였다. 그들은 그이의 품에 안겨 재미나는 동화집을 한장두장 펼쳐보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행복의 시간이 어느덧 흘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그이께서는 따라나서는 박원이와 훈이를 품에 안아주시며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야 한다고, 둘째는 자신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그림을 잘 완성하라고 다정히 이리시고 온 가족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참으로 이 세상 만복을 다 받아안은 복받은 형제였다.



# 국가가 부담한다

- 평양시인민위원회 인민봉사관리국 부처장 리철룡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새로운 육아정책과 관련하여 지금 정권기관 일군들이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젖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부처장: 그렇다.

다 알고있는 문제이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연령기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때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전원회의가 끝난 후 일군들은 전국의 축산전문협동농장들과 목장들에 있는 염소와 젖소마리수를 더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젖가루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들도 추진하

였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만경대구역과 락랑구역, 력포구역, 은정구역 등에 있는 농장들에서 젖짜는 염소마리수를 더 늘이는 사업을 내밀었으며 이미 있던 젖가루생산기지를 확장하는것과 동시에 새로 많이 꾸리였다.

이로써 락랑구역, 강남군을 비롯한 구역, 군들에 70여개의 젖가루생산기지가 꾸려졌으며 생산이 진행되고있다.

기자: 나도 이번에 취재를 다니면서 어디서나 젖가루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감동이 컸다.

부처장: 일군들이나 사양공, 노동자들이나 다 아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젖가루생산에 진심을 다 바치고있다.

조선로동당 평양시 만경대구역위원회 일군들과 구역인민위원회 부장급이상 일군들은 농장들을 담당하고 그곳에 나가 젖가루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하였다. 또한 구역에 염소목장을 건설하고 수백마리의 염소를 확보하여 매일 염소젖을 생산하고있다.

어느 한 구역 탁아소유치원

물자공급소에서는 자체로 염소목장을 새로 건설하고 수십마리의 젖짜는 염소를 구입하여 사양하고있다.

기자: 이런 하나와 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유치원과 탁아소로는 매일 젖제품을 실은 차들이 줄지어가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튼튼히 자라고있는것이다.

부처장: 정말 지금과 같이 힘든 때에 국가적부담으로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한다는것은 대용단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수천수만금을 들여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으로 내세웠다.

하기에 우리 어린이들은 당과 국가의 보살핌속에 미래의 주인공으로 역세계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은 잘 몰라도 먼 후날 힘들고 어려운 때 자기들에게 돌려진 당과 국가의 혜택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 부러움을 모르는 원아들

주체105(2016)년 7월에 새로 일떠선 평양중  
등학원을 지난 기간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  
들이 참관하였다.

그들은 훌륭한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속에서  
단 한점의 그늘도 없이 공부하고있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학생이 되어 이곳에서 공부  
하고싶다고 저저마다 이야기했다.

재미교포 리준무선생은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아라는 말을 듣고 불쌍한 마음이  
앞섰었는데 학원을 돌아보니 부러운 마음이 가  
득 생겨난다고 하면서 조국의 원아들은 축복받

은 아이들이라고 감동에 젖어 말하였다.

##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일떠선 교사와 기숙사, 체육관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중등학원의 연건축면적은  
2만 4 000여㎡이다.

학원에는 원리교육을 선행시키고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을 배합하면서 원아들의 사고를 계발  
시킬수 있게 교육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있다.  
통합교육지원체계에 의하여 교실들에서는 해

당한 교수지원프로그램들과 다매체편집물을 교  
수에 리용하여 교수의 질을 한층 높이고있다.

매 교실들은 과목교실들로 꾸려져 원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있다. 과목교실중의 하나인  
조선력사교실에는 천정과 벽면들에 흘러온 력  
사를 더듬어볼수 있게 력사발전단계와 유적유  
물, 명인, 풍습 등이 직관화되어있다. 뿐만아  
니라 교실에는 조선력사를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서들도 있어 원아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상식을 주고있다.

각종 실험설비들과 기재들로 꾸려진 화학실

험실, 물리실험실, 생물실험실, 기초기술실습  
실, 자동차실습실을 비롯한 실험실습실들은 원  
아들이 배운 내용을 실험과 실습을 통해 공고  
화해나갈수 있게 되어있다.

자동차실습실만 놓고보아도 3D투영자동차훈  
련모의기재를 리용하여 원아들이 운전기술을  
충분히 습득할수 있게 되어있다.

학원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이 은을 내도록  
교원들의 실력제고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교원들은 교육자이면서도 어머니다운 품성으  
로 원아들의 소질과 취미를 세심히 관찰하여





새로운 교수방법을 토의하는 교원협의회

그들의 발표능력도 키워주고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절대로 스쳐보내지 않고 꽃피워주고있다. 이러한 나날속에 최우등생대렬은 늘어나고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중앙급대학들에 입학하고있다.

과외생활

수업이 끝나면 원아들의 생활은 매우 흥미진진하게 흐르고있다.

그들은 음악, 미술, 룡구, 배구, 수영 등 각이한 소조들에 망라되어 자기 희망에 따라 재

능을 키워가고있다. 고급1학년 학생인 한대호는 미술소조에서 서예를 배우고있다. 평양초등학교때에는 그림만 그리던 그가 평양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서예도 같이 배우고있는것이다. 김선동미술교원은 남달리 감수성이 빠른 그에게 여러 서체들을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획마다에 감정, 정서를 담도록 세심히 지도하였다. 한대호학생이 창작한 서예 《행복넘친 우리 집》, 《그리움과 혈연의 정》은 주체108(2019)년과 주체110(2021)년에 진행된 태양절 경축 전국서예축전들에 입상하였다.



지식을 습득하고있는 원아들





수예소조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고급3학년 학생인 백은복, 김청심은 《색실들  
 로 갖가지 꽃들과 수려한 자연풍경을 펼쳐보이는  
 수예를 배우는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기  
 법들을 배우면서 민족수예의 유구한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백은복  
 은 소조원들이 한마음으로 창작한 수예작품은 평  
 양시적으로 진행된 축전에 입상되었는데 앞으로  
 전국축전에 나가게 된다고 덧붙이었다.  
 그런가 하면 축구, 배구, 룡구소조에 망라된  
 원아들의 활동으로 학원은 주체106(2017)년과



**과외소조활동을 통하여 재능을 꽃피워  
 가고있는 원아들**



주체108(2019)년에 진행된 전국학원원  
아들의 체육경기들에서 1등을 하였다.  
침실들과 학습실, 진료소, 문화후생  
시설들이 꾸려져있는 기숙사에서는 과  
외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친부모의 정

을 기울이고있다.  
그들은 원아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키  
크기운동에 힘을 넣고있다.  
교양원들은 명절, 일요일을 비롯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원아들**

휴식일에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참관을 자주 조직하여 원아들이 혁명선렬들의 넋과 조국의 현실을 체득하게 하였다.

어머니와도 같이 따뜻한 정을 기울이는 과외교양원들의 모습은 원아들의 일기장에 자주 비끼고있다.

교복과 학용품,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을 제일선참으로 받아안은 원아들은 제도의 고마운 사랑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나라의 역군들로 자라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체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해  
가고있다.**

# 평화와 안전을 담보

외세의 침략과 전횡이 판무하는 오늘 세계에서 오직 자위의 강한 힘만이 국가발전과 번영의 담보로 되고있다.

조국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지난 한세기전까지만 해도 조국은 제국주의 령장들이 저마끔 자기 수중에 장악하려고 쟁탈전을 벌리던 나라였다.

당시 프랑스의 한 만화가는 다리밑에 있는 《조선》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줄들을 드리우고있는 한장의 그림으로 렬

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었던 조국을 묘사하였다. 바로 이것이 화승총마저 변변히 없었던 탓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 되어야만 하였던 지난 한세기전의 조국이었다.

그러하였던 조국이 지금은 세상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경탄해마지 않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어제날 힘이 약해 외세에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던 조선민족이 오늘은 자주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가장 고귀한 결실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대세력들은 자주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군사적압박과 경제제재의 도수를 그 어느때보다 높였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병진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시고 구현해오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의 계승이고 심화발전인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나라의 강성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넓은 앞길이 열리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로운 병진로선의 관철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헌신은 끝이 없었다.

몸소 삼복의 무더위도 엄동의 강추위도 가림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시며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기 위한 험로역경의 초행길을 헤쳐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만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체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로 나가도록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그 길에는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과학



자, 기술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기발한 과학적작상과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잊지 못할 사연들도 있었다. 때로는 전략무기시험발사를 지도하시려 풍랑사나운 바다길에 오르시었고 위험천만한 전략무기총조립 전투현장까지 찾으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었다.

《3. 18혁명》의 력사의 그날에는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험에 성공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자신의 등에 업어도 주시었다.

새형의 전략무기시험발사를 앞두었을 때에는 나라일이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며칠간 총조립전투현장을 계속 찾으시여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발사준비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었고 발사당일에는 이른새벽 또다시 현지에서 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그이이시었다.

참으로 전략무기개발에 바치신 그이의 헌신은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세계정치구도를 변화시키는 특대형사변들을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탄생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새형의 전략무기개발방향을 제시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여 완성시켜주시었다.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군수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냈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또 다른 새형의 전략무기를 연구개발하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나 전략무기개발전투장과 시험장들에 나가시여 실태를 수시로 직접 료해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시험발사준비가 끝났을 때에는 깊은 밤도 마다하지 않

으시고 발사장을 찾으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무기시험발사를 위한 전공정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해주신 그이이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끝없는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새형의 전략무기들이 련이어 태어나 공화국은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군사적기적들을 짧은 기간에 이룩하여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었다.

그이의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3. 18혁명》, 《7. 4혁명》, 7. 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

사변》이 이룩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바라던 민족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조국은 자기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었다.

존엄높은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오늘의 승리를 통하여 조국인민이 신념으로 체득한 철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는 바로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 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인민들이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자손손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만대에 길이 빛나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 남 만 으 로

유격대활동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항일유격대가 정식 창건된 다음 우리 동무들속에서는 그 활동의 첫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성시에 가서 열병행진을 하고 소사하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농촌집 옷방에 대원들을 3~4명씩 분속시킨 다음 그들을 며칠동안 휴식시키면서 유격대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이 토의과정도 역시 카룬이나 명월구에서처럼 격렬한 논쟁을 동반하였다.

모여서 입씨름을 하는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개개명창이었다.

유격전에 대한 개념도 각이하였거니와 그 전술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도 십인십색이었다. 지식 정도와 생활경로, 소속단체가 서로 다른 100여명의 청년들이 모인 집단인것만큼 목소리도 여러가지일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첫번째 부류의 주장은 소조론이었다. 소조론이란 중대요, 대대요, 련대요, 사단이요 하는 판에 박힌 부대편성방법을 따르지 말고 간편하고 기동성이 높은 무장소조들을 많이 조직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들을 타승하자는 주장이었다. 삼삼오오의 소조로 유격대력량을 세분하여 참모부의 유일적작전에 따라 수십수백의 소조가 도처에서 활동하게 되면 능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킬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의 제창자들은 무장소조를 기본단위로 하는 유격전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형식을 하나 창조해내는 과정으로 될수도 있다고 하였다.

돈화와 연결에서 온 청년들가운데 특히 이 소조론을 주장하는 동무들이 많았다. 이 두 고장의 청년들은 리립삼의 좌경적인 모험주의로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그 여독이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남아있었다.

차광수는 이 무장소조론에 대하여 현대판 불량

끼주의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차광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였다.

일제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기때문에 대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무장대결은 피하고 몇사람씩 패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라석주나 강우규처럼 적의 우두머리들에게 폭탄도 던지고 통치기관들에 방화도 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철추도 내리자는것이 무장소조론의 본질이었다.

무장소조론은 유격전의 외피를 쓴 테로주의의 변종이었다.

이 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투쟁방법에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후퇴를 용인할수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 애국자들에 의하여 두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는 도교 궁성 앵전문밖에서 일본천황이 탄 쌍두마차를 향해 폭발탄을 던진 리봉창렬사의 의거이며 다른 하나는 그해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렬사가 단행한 폭탄투척사건이다. 리봉창은 폭탄의 불명중으로 천황을 처단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윤봉길은 거사에 성공하여 상해 주둔 일본사령관 시라가와대장과 무라이 상해총령사, 가와하시 거류민단장을 즉사시키고 주중공사, 제9사단장, 해군대장을 비롯하여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홍구공원에 모여온 여러명의 두목급군정요인들에게 중상을 입힘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였다.

리봉창이 천황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된 다음날인 1932년 1월 9일 중국국민당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호활자로 《한인 리봉창 저격 일본천황 불행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밖의 여러 신문들도 리봉창의 의거를 특종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지의 일본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불행(不幸)자를 쓴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되었다.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도 조종인민들은 다같이 격찬하였다. 홍구공원사건이 있는 후 중국사회계의 명사들이 련이어 이 사건의 조직자이며 배후조종자인 김구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일본의 침략에 투항주의로 대처하고있던 중국국민당 반동정부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조선민족의 투철한 저항정신과 영웅성에 감동되어 재중조선인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리봉창과 윤봉길은 다같이 김구의 부하들이였으며 김구가 주관한 한인애국단의 성원들이였다. 한인애국단의 기본적인 항일투쟁방법은 테로였다.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에 뒤이어 대련에서는 김구가 파견한 애국단원들이 관동군사령관 암살미수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국제련맹 릇든조사단이 봉천으로부터 대련에도착할 때 일본군정요인들이 역으로 나오는 기회를 타서 관동군사령관과 만철총재, 신임외사부장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김구는 부하들을 파견하여 조선총독까지 처단하려고 하였다.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이 민족적영웅으로 찬양되고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국내는 물론, 미주, 연해주, 만주 등지에 산재한 온 교포사회가 법석 끓고있던 시대적분위기를 타고 테로주의는 적개심에 불타는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현혹시키였다. 이런 시기에 무장소조론과 같은 주장이 대두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까지 상정된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장소조론의 제창자들은 조선과 일본, 중국각지에서 윤봉길의 거사와 같은 의거가 련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제통치의 아성이 흔들리게 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다른 하나의 부류는 전면적인 무장공격으로 당장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일룡과 같은 사람들이 무장소조론에 흥미를 느끼고있었다면 박훈, 김철(김철희)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적인 무장대결론에 미련을 가지고있었다. 대도시에서 수천수만명의 정규군과 폭동군중이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다니는 광경만을 보아온 박훈이 무장소조론을 시답지 않게 대하면서 전면적인 무장공격을 즉시에 개시해야 한다고 고집하는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수 있는 일이였지만 남의 집에서 데릴사위로 있던 김철이 그 고분고분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할 때에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적무장공격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정한 논거는 가지고있었다. 일본은 9.18사변으로 만주강점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고 상해를 비롯한 관내의 여러 요충지들을 점령하였다. 동3성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새로 태어나 기발을 걸었다. 다음목표는 어디인가? 중국본토와 소련이다, 지금 일본군대가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공격속도를 늦추고있지만 무슨 트집을 또 하나 잡아서 중국을 들이치고 소련을 공격하리라는것은 명약판화한 일이다, 때문에 현재 조직된 무장부대들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는것은 전쟁의 수령창에 깊이 끌려들어가고있는 일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것으로 될것이다, 우리 유격대가 적극적공격자세를 취하는것은 력사가 부르는 명령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거였다.

김일룡은 이 급진적인 주장에 대하여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라.》는 속담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리였다. 사실 그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준비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주관적인 견해였다.

물론 우리가 카룬에서 제기한 무장투쟁로선은 일제와의 전면적무장대결을 예견한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기본양상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무장대결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그러나 방금 첫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유격대가 아무런 자체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걷는다는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 《봄맞이》 기초식품생산자들

맛이 좋아 사람들이 먼저 찾는 《봄맞이》 제품!

누구나 《봄맞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봄계절의 정취를 한가정의 식탁에서도 느낄수 있을것 같다고 말한다.

평양시 선교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기초식

품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봄맞이》제품들은 시안의 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다.

창립당시 일반된장만을 생산하던 이 공장은 그 후 간장과 기름, 맛내기생산공정까지 갖춘 기초식품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

공장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조선사람들의 고유한 기초식품인 된장에 여러가지 기능성물질들을 첨가하여 그 가지수를 10여가지로 늘이었다. 그리고 불고기간장, 해물간장을 비롯하여 간장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그 맛이 개선되고있으며 맛내기와 기름생산량도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질제고와 생산량확대에 대해 리근일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생산설비의 현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비를 다루고 제품을 만드는것은 생산자들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창조적열의를 발전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기초식품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기어이 안아올 목표를 세웠다.

기사장 손현철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미약한 공정들은 보강하고 없는 공정들은 갖추어나가는것과 함께 설비상태를 정확히 료해한 기초우에서 있을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앞질러가면서 대책해나가고있다. 자금과 자재, 시간과 로력을 들인데 맞게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지배인으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모두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기술학습을 꾸준히 하여 누구나 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구조작용원리를 환히 알고 생산을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자, 기대공, 수리공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계발시켜 질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설비도 제작하였다.

결과 된장직장에서는 곡자실을 개조하여 곡자공정의 자동온습도조종체계를 완성하고 공정선공정의 진동체를 합리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된장

의 질을 더욱 높이었다.

가공직장에서 성능좋은 분쇄기를 도입하여 당액의 농도를 16%이상 보장하고있다.

기름직장에서는 먼적외선건조기를 제작설치하여 원료의 수분함량을 3%아래로 낮추어 기름생산량을 1.6배로 끌어올리었다.

양양된 대중의 열의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마련이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 재자원화체계를 확립하여

신의주방직공장은 창립이후 지난 수십년간 10명의 방직공영웅들과 5명의 공훈방직공들을 배출하였으며 해마다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여왔다.

공장에서는 상반년기간에만도 10여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나왔으며 적지 않은 방직공들이 현재 올해계획을 완수하였다.

공장의 생산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경영활동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공장에서는 정연한 재자원화체계를 세우고 생산물의 질과량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우선 재자원화종합공정을 새로 꾸리고 실리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재생솜을 리용하여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게 하였다.

원료보장에서 수매사업의 폭을 넓혀 파شم, 고포를 확보하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도 전부 회수처리하는 등 원료를 충분히 보장하고있다.

이곳 기술자들은 폐유에 의한 방적유제와 물감보조약제를 개발하고 소면기, 절단기들을 갱신하는 한편 파사 및 고포헤침기를 새로 제작하는 등 기술개조를 다그쳐 생산성을 2.5배

로 높이면서도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다.

그리고 갈팔프페액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과 공기정방기로 섬유질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올해 생산자대중이 창안한 기술혁신안들은 300건 이상에 달한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물론 방직공들과 직포공들도 재자원화사업에 떨쳐나서고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수만m의 가림천을 생산보장한것을 비롯하여 각종 폐설물로 여러 용도의 천생산을 늘이고있는 이 공장은 재자원화사업으로 오늘 전국의 앞장에 서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경



# 시대를 반영한 작품창작으로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신문경과 본사기자의 문담 -



기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문학창작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활력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렇다.

지금 온 나라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작품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벽차고도 들끓는 시대는 작가들에게 무진장한 소재와 창작적령감을 주고있다.

전국의 작가들과 군중문학동신원들은 년초부터 현실에 들어가 시대를 선도하고 대중을 위훈창조예로 불리일으키는 시가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시문학분과에서만도 좋은 작품들이 나왔다.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에 나간 시인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정시 《황철은 싸운다》, 《쇠물과 너인》, 《남흥은 만풍의 가을을 부른다》, 벽시 《처녀의 속삭임》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최현아시인은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남먼저 탄원진출한 청년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담은 장시 《청춘대행진》을 창작하여 문단계의 초점을 모았다.

뿐만아니라 가사 《당중앙프락에 우리 집 있네》, 《내 인생의 행복》, 《축배를 들자》, 《명절축배》를 비롯한 수많은 가사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뿐만아니라 《산골리발사》, 《나를 부르는 길》, 《춘희분조장》을 비롯한 여러 주제의 단편소설들도 창작되어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 군중문학동신원들뿐이 아닌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이 천수백편이나 투고되었다.

기자: 독자들의 반향은 어떠한가.

위원장: 작품들이 출판보도물들에 소개되자 반향이 대단했다. 로동자들은 일터의 설참에도 시들을 읊었고 청년들은 수첩에 적어가지고다니며 애송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직장장 김경철은 서정시 《황철은 싸운다》는 우리 용해공들의 심정을 잘 담았다고 하면서 설참에도 읊고 퇴근하여서는 자식들에게도 읊어준다고 하였다.

남포시에서 살다가 안해와 함

께 사회주의농촌에 탄원한 김충성은 장시 《청춘대행진》을 비롯한 시들에서 이름과 주소는 달라도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청년들의 모습을 모두 새겨안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자: 올해 창작된 작품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위원장: 현실주제의 작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것이다.

장시, 서정시들만 놓고보아도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는 청년들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 매진하고있는 로동계급의 생활을 반영한것이 많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이 창작된것이다.

시만 놓고보아도 서정시뿐아니라 장시, 벽시, 단시 등 여러 종류의 시들이 창작되었다.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들인 《그 정을 따르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와 같은 작품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어 작품창작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기자: 듣고보니 작가들의 창작열의가 대단히 높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높아가는 열의로 하여 먼 후날에 가서도 누구나 애송하고 즐겨 부를수 있는 그런 문학작품들이 더 많이 창작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하다.

\* \* \*

# 원림화원 교정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창덕학교를 두고 사람들은 수림속의 교정이라고 부르고있다.

한것은 학교청사를 중심으로 조성한 원림록화구역의 여러가지 꽃관목과 무성한 나무들이

이채로운 풍치를 펼치였기때문이다.

관상용가치가 있으면서도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 지피식물들이 가득한 학교의 수천㎡의 원림록화구역은 마치 작은

식물원을 방불케 한다.

실지 여러가지 식물의 형태와 계절별에 따르는 색깔, 각이한 성장효과를 고려하여 조형예술적으로 설계한 원림록화구역은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

나 식물원에 온듯한 느낌을 주고있다.

잣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등의 사철푸른 바늘잎나무들과 금잎느릅나무, 넓은잎정향나무, 붉은단풍나무 등 여러가지 색깔의 나무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있고 사과나무, 추리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하여 계절에 따라 무르익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과일향기를 풍기고있어 보다 깊



은 정서를 더해주고있다.

학교의 원림록화사업은 교정의 풍치를 돋굴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학교의 원림록화구역은 그대로 교재림으로 리용됨으로써 학생들이 지난 시기에는 자연관찰이나 식물관찰을 위해 중앙식물원과 모란봉 등으로 가야 하

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것들을 교재림에서 진행하고있다. 더욱이 수업이 끝나면 교원들과 학생들은 이곳에서 청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도 하고 학습도 진행하고있다. 또한 졸업생들이 졸업기념식수를 하는것이 전통화되어 애국의 마음도 키워가고있다.

이곳 정성금부교장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림록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원림록화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이곳 일꾼들은 전문가들의 방조속에 학교의 원림설계를 다시 시작하는 한편 교직원들에게 여러가지 도서와 편집물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업을 학교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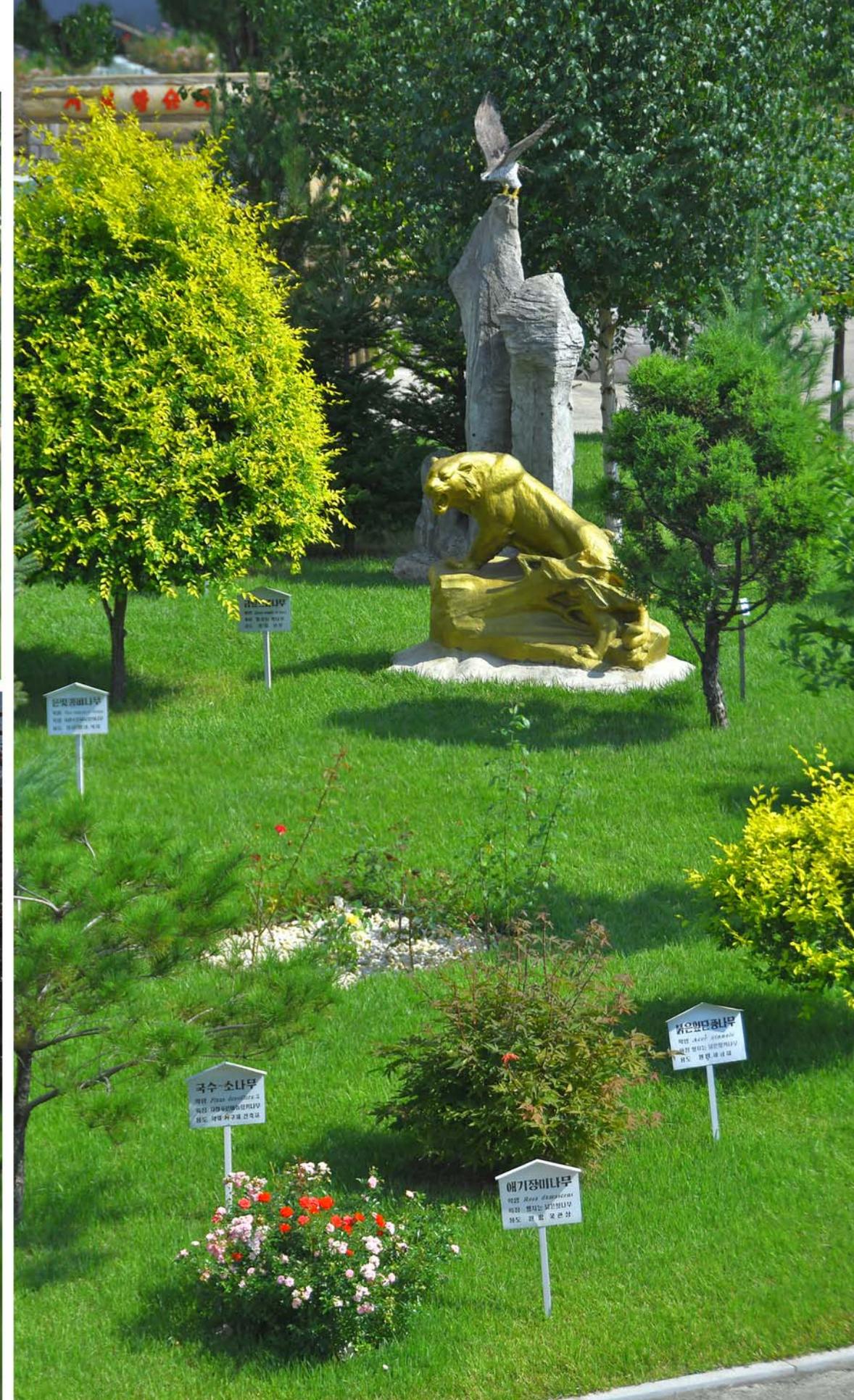




하여 설계에 따르는 원림복화구역건설이 짧은 기간에 완공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이 해마다 힘있게 벌어져 오늘과 같은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수림화, 원림화사업을 보다 교육학적요구에 맞으면서도 시대적미감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 박사 지배인

평양곡산공장 지배인 박형렬은 남다른 일본새를 가진 일꾼이다.

얼마전 공장을 찾아 지배인에 대해 묻는 말에 기사장 리성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배인동무는 착상력과 조직력, 집행력이 강한 일꾼입니다.》

흥미가 동하는 말이였다. 공장의 현대화,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박형렬지배인은 언제나 한다하는 기술자들도 생각 못하는 묘안을 내놓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할뿐 아니라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완강성을 발휘하였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지배인

으로 사업하면서 국산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원료, 자재수입에 중지부를 찍음으로써 우리 식의 당생산공정을 완비하고 그에 의한 당과류생산체계를 확립해놓은것을 비롯하여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박형렬은 지배인으로 임명되자마자 첫 사업으로 강냉이가공공정과 물엿생산공정을 비롯한 앞공정현대화사업을 준비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본래의 생산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였다.

당시 공장형편은 이에 대한 경험도 기술도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식 효소법

에 의한 물엿생산공정을 확립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업무활동으로 바쁜 속에서도 과학기술서적을 탐독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방도를 탐구하기도 하면서 끝끝내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이 공정의 현대화계획을 작성하였다.

그후 박형렬은 공장의 기술집단과 지혜를 합쳐 기술과제서를 완성하고 근 수십종에 100여대에 달하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하여 시운전을 진행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당생산공정을 기어이 확립하여 놓았다.

생산공정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본보기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표준으로 내세울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믿음에 고무된 박형렬과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없는것은 찾아내고 있는것은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해마다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월

별, 분기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후 박사로, 공화국 로령영웅으로 성장한 박형렬은 각종 효소와 그에 따르는 시약, 활성탄, 러파포, 규조토와 같은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그는 자기 가슴에 늘 품고다니는 수첩에 썩여진 수입산보조자재들과 시약들의 이름열에 《국산화》라는 글자를 박아넣기 시작하였다.

물엿가공과 옥당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규조토만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 찾기는 했지만 그 질적 지표가 공장에서 요구하는 기



경영업무의 과학화에 혼심을 바쳐가고있는 박형렬

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런 규조토를 기어이 찾아낸 박형렬은 몇달전 마지막수입지표였던 이송화효소를 국산화하는데 끝내 성공하였다.

이렇듯 박형렬은 주체의 신

념을 체질화한 일꾼의 량심의 고백과도 같은 《국산화》라는 세 글자를 위해 자기의 온넛과 정열을 바치여왔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설비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박형렬

## 상식

### 천상렬차분야지도

우리의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는 《천상렬차분야지도》도 있다.

천문학을 중시한 선조들은 고구려시기에 벌써 일식과 월식, 류성(별찌)과 혜성(살별)의 움직임, 태양흑점 등 당시로서는 매우 희귀한 천문자료들까지 관측하였으며 5세기말~6세기초에 세로 약 2m, 가로 약 1.2m의 돌판위에 천문현상을 새긴 석각천문도를 만들었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는 당시 수도였던 평양의 밤하늘에서 볼수 있었던 1 467개의 별들이 하나의 원안에 282개의 별자리들로 갈라져 표시되었다. 그것은 당시의 천문학리론과 지식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하였고 천문관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력서편찬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석각천문도를 대본으로 하고 14세기말의 천문학적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하

여 만든것이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너비 122.8cm, 길이 209.9cm로서 당시로서는 아주 과학적이고 세밀한 천문도였다.

여기에서는 세차현상 즉 립춘날의 태양위치가 해마다 50.2초씩 서쪽으로 옮겨져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고구려때와는 달리 별자리들의 위치에 차이가 생겼으므로 관측자료에 근거하여 천문도의 별자리들을 12.5°씩 돌려놓았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당시 별들의 위치를 빨리 알아내어 천문관측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편리하고 귀중한 지도문건으로 되었다.

그 내용의 정확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천상렬차분야지도》는 중세기 우리 민족의 천문학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되고있다.

\* \* \*

# 유능한 안과 전문가



류경안과종합병원 망막과 과장 김만식은 안과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세련된 수술수기를 가진 40대의 유능한 안과전문가이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16년을 안과의로 일해오면서 지금까지 수천명의 안과질환환자들에게 광명을 되찾아주었다.

그는 나라의 안과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안과수술방법들도 내놓았다.

그가운데는 그가 조국의 실정에 맞게 새로 확립한 유리체망막수술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체망막수술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첨단수술로서 비용이 엄청난것으로 알려져있다.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던 유리체망막수술이 김

만식과장에 의해 새롭게 확립되어 난치성안과질환치료에서는 새로운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난 7월에도 김만식과장은 유리체망막수술로 증식성유리체망막증에 외사시까지 합병되었던 강원도 고산군 읍 11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효정녀생에게 광명을 되찾아주었다.

병원문을 나서던 날 한효정은 《김만식선생님의 모습을 나의 눈에 영원히 새겨두고싶다. 내가 사는 주위의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감상록에 써넣었다.

현재 김만식과장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안과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얼마전에도 그는 증식성유리체망막증과 증식성당뇨병성망막증을 비롯한 난치성안과질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여러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을 발표하여 안과분야의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김만식과장은 《의술이 없으면 안과 의사도 소경이 된다. 사람에게 광명을 안겨주는 안과 의사는 자기의 직분을 무겁게 대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김만식



수술을 진행하고있는 김만식



환자치료에 정성을

## 조선속담

- 잔치날 신부를 가마에 래워놓고 버선이 없다 한다  
큰일을 치르면서 미리 아무런 준비도 마련도 없음을 비웃어 이르는 말.
- 개발에 버선  
옷차림 같은것이 격에 어울리지 않고 분에 지나침을 이르는 말.

## 버선과 관련한 속담

- 버선뚱이라고 뒤집어도 못보이고  
자기의 마음속을 그대로 드러내보일 방도가 없어서 몹시 안타깝거나 답답함을 이르는 말.
- 버선신고 발바닥긁기  
어떤 일을 애써 하나 요긴한데를 면바로 건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이르는 말.

\* \* \*

# 유술명인상을 받은 감독



주체107(2018)년에 받은 국제유술련맹 유술명인상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4중세계유술선수권보유자, 국제유술련맹 유술명인상 수상자인 계순희는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다. 그의 체육선수생활은 말그대로 성공으로 아로새겨져있다.

10여년전 세계유술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계순희는 은퇴한 후 자기의 소녀시절의 선수생활이 흘러간 모란봉체육단(당시 모란봉청소년체육학교)의 여자 유술책임감독으로 일하고있다.

지식인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유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반대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선수생활초기부터 계순희의 경기성적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육체기술적능력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완강한 방어능력과 불의적인 공격기술 등 여러가지 특기기술을 완성한 그는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공화국 체육명수로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국제경기에 나선것은 주체85(1996)년 7월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제26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였다. 그는 이 경기대회 여자유술 48kg급경기에 출전하여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출전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계순희



후비양성에 힘을 넣고있는 계순희

선수가 맞다든 선수는 6련승을 자랑하던 일본의 다무라 요코였다.

국제무대에 처음 나선 신진 선수와 선수권보유자인 일본 선수와의 승부는 불보듯 명백한 듯싶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계순희는 예상을 뒤집고 일본 선수를 타승함으로써 많은 유술전문가들을 놀래웠다.

10대에 올림픽수상자가 된 그에게 있어서 다음목표는 세계 유술선수권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그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투지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였다.

국제 유술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그를 전문가들은 주시하였으며 제나름대로의 예평을 하기도 하였다. 올림픽에서 우승

을 했다 해도 세계 유술선수권을 쟁취하리라는 담보는 없다는 평이 우세하였다.

그는 그후에 있는 국제경기들에서 진도유망한 유술강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주체90(2001)년 도이칠란드에서 진행된 세계 유술선수권대회 52kg급경기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처음으로 세계 유술선수권을 보유하였다.

뒤이어 그는 주체92(2003)년과 주체94(2005)년에 진행된 세계 유술선수권대회들에서 련전련 승하여 선수권보유자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주체96(2007)년 세계 유술선수권대회는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

가정을 이룬 그였지만 이악

하게 훈련하여 이전시기보다 더 높은 몸무게급인 57kg급경기에도 도전하여 우승함으로써 4중세계 선수권보유자의 단상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그가 지도하는 선수들은 대다수가 10대의 나 어린 선수들이다.

이것은 그가 선수들의 조기 선발과 기초 훈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의 훈련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언제나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선수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들이 자기의 특기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훈련장에서 그는 엄격한 감독일뿐 아니라 다심한 어머니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그가 키워낸 선수들은 여러 국내 및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주체98(2009)년 그는 B급 국제심판원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주체107(2018)년에는 국제 유술련맹 유술명인상을 수여받았다.

이로써 그는 세계적인 체육명인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의 남편도 국내의 이름있는 체육단에서 여자 유술책임감독으로 사업하고 있다.

그에게는 5살 난 딸이 있다.

그는 선수권보유자이기에 앞서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안해이며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주부이다.

계순희는 말하였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키워낸 선수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글 본사기자 리제령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가족과 함께

#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제 얼마 안있어 어머니날이다.  
 나와 안해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표시해놓고 이 날을 기다린다.  
 안해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기념품과 식료품을 상점에 주문하여놓는가 하면 어머니 몸보신에 좋은 보약들도 하나하나 장만하고있다.  
 그러는 모습을 볼수록 나는 생각도 깊어진다.  
 솔직히 철없던 그 시절 나의 시야에 비낀 어머니의 모습은 바람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김만유병원 복부외과 의사를 하였던 어머니(리명혜)는 밥을 짓다가도 병원에 구급환자가 들어왔다는 전화만 받으면 달려나가곤 하였다.  
 그리고는 며칠밤을 환자옆에서 침식하며 집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러면 자연히 부엌은 아버지의 세계로 되었으며 나와 동생은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를 기다리며 숙제하곤 하였다.  
 그러다나니 나와 동생의 숙제장에는 《어머니 보았습니다.》라는 수표보다 《아버지 보았습니다.》라는 수표가 더 많이 오르곤 하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은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더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나는 늘 직장에만 나가사는 어머니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생이 몹시도 앓게 되었다.  
 나는 속상해서 집에 있던 약이란 약은 다 꺼내놓았으나 어느것부터 어떻게 먹일지 몰랐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어머니는 동생의 이마에 찬물찜질을 해주고 열내림약과 항생제를 먹였다.  
 그러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던 동생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며 차도가 보였다.

동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가지 말라고 어머니만 있으면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몇번이나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땀을 닦아내고는 나에게 약을 먹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병원에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나나 동생보다 환자들이 그렇게도 고운가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희들도 귀중하고 환자들도 귀중하다고, 생사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의 활력을 부여하여야 하는것이 엄마의 임무라고 하면서 혼연히 집을 나섰다.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는 수술칼을 집었고 최종환자들을 살려냈다.  
 주체91(2002)년 로동신문에는 《수술칼을 사랑하는 너의사》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다.  
 중학교(당시) 졸업반학생이었던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자그마한 어머니의 손에서 소생의 기쁨을 맛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고 이런 어머니를 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강했기에 어머니는 그 사랑의 힘으로 환자들에게 두번째 생을 주었다.  
 어머니는 주체95(2006)년 평양산원 의사로 조동된 후에도 환자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쳤다. 자궁근종으로 인하여 자궁적출술을 받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혈관인터벤션기술의 하나인 자궁동맥전색술을 개척할 결심을 품었다.  
 수많은 의학자료들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혈관조영설비를 리용하여 화상을 인식하였으며 모의실험도 수차례 걸쳐 진행하였다.  
 어머니에겐 일요일, 명절이 없는듯하였다. 많은 의사들도 어머니의 연구를 적극 도와나섰다.  
 노력의 결과인듯 연구를 시작해서 1년만에 혈관인터벤션기술로 량성종양을 비롯한 산부인과 질병들을 치료할수 있게 되었으며 혈관조영치료과도 조직되어 어머니는 그 과의 첫 과장으로 되었다.

주체105(2016)년에 진행된 전국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한 여러 축전,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나이가 많아졌지만 어머니는 오늘도 조선여성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침단수술방법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림상실천에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정력을 아끼지 않는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또렷이 나의 기억에 새겨지고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키워준 어머니, 《우리 의사선생님》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머니를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어머니날에 부를 지정곡으로 노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를 준비했다.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2동 60인민반 정학철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어머니를 축하하여



# 자기를 바치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있는 평양약기공장 지배인 로력영웅 조규덕(오른쪽에서 네번째) 주체86(1997)년 촬영

《아이가 아파서 교원을 그 만두었다구? 무상치료제인 조국에서 조금만 치료받으면 나를 병인데 그게 될 말이나. 그렇게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바칠줄 모르는 사람은 큰일을 못한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3년전 둘째딸 조옥현에게 그의 아버지(조규덕)가 한 말이다.

아버지의 말은 조옥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으며 그가 다시 교단에 서게 하였다.

지금 조옥현(50살)은 동평양제1중학교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

땅속에 깊숙이 묻혀 거목을 자래우는 뿌리처럼 그는 교단에서 후대들을 위하여 자기의 량심, 온넛을 바쳐가고있다.

늘 수업전에 학생들을 료해하고 그들이 수업에 절로 끌려들도록 교수를 흥미진진하면서도 구수하게 하여 학생들이 그 날 배운 내용은 그날로 소화하도록 하고있다.

한번은 담임한 학급의 김준학생이 물리과목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이 과목시간만 되면 외국어공부를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조옥현교원은 수업이 끝난후이면 김준학생의 개성을 살려주면서도 그가 스스로 물리과목에 취미를 붙일수 있도록 품을 많이 들였다.

물론 물리과목교원은 아니었지만 학생과 함께 외국어를 공부하다가도 물리와 관련한 일화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여러 법칙들의 실례도 이야기해주

면서 그가 자연히 물리과목에 호기심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었다.

퇴근길에는 김준학생의 집에 들러 물리와 관련한 책들도 안겨주었다.

그 과정에 김준학생은 물리과목을 좋아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물리학과경연에서 특등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수수단, 수법들도 부단히 갱신하였다. 새것을 좋아하고 진취성이 강한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수업에서 토론과 론쟁이 위주로 되게 하면서 그 과정에 그들스스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해명해나가게 하였다.

이러한 교수방법은 학생들에게서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새교수방법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조옥현(오른쪽에서 두번째)

손끝에서는 최우등생들이 자라났으며 졸업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급대학들에 입학하였다.

탐구적인 자세로 하여 그는 새교수방법등록증을 여러개나 받았으며 중앙10월8일모범교수자로 되었다.

모범교수자로 된 날 많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그를 축하해주었다.

그때 조옥현교원은 아버지를 생각했다.

주체49(1960)년 4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아버지.

아버지는 귀국후 소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서 공부하면서 그 누구보다 조국의 고마움을 온몸으로 느끼었다. 아버지는 졸업후 자진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해공으로 갔다. 조국을 위해 땀을 한껏 바치고싶었던것이다. 그후 그는 여러 단계를 거쳐 평양약기공장 지배인이 되었다.

조규덕지배인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악기생산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은방울》손풍금이 맑고 풍부한 음향과 높은 품질로 하여 악기전문가들과 연주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그 인기영역은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주체86(1997)년 10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공로로 조규덕지배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뜻깊은 날 딸 여섯을 불러 앉힌 조규덕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사람이 자기 한생을 돌아볼 때 자기를 위한 자옥보다 자기를 바친 자옥이 많아야 값 높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수 있다. 난 그래서 너희들이 의사, 교원, 연구사직업을 선택하게 했다. 영웅인 아버지를 쳐다보며 편히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을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을 위해 무한히 자기를 바치라.》

조옥현교원은 오늘도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고 미래를 떠받드는 든든한 뿌리가 되기 위해 헌신하고있다.

대학에 다니고있는 두 딸도 할아버지, 어머니가 걸어온 길이 자기들이 걸어갈 길임을 잊지 않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 평



휴식일에 가족과 함께 대동강유보도에서

# 락엽은 대지를 덮건만

이해에 무성했던 잎새들이 하나둘 떨어져 대지를 덮는 마가울이다. 얼마전 나는 평양시력포구역에 있는 해외동포애국가자묘를 찾게 되었다.

《해외동포애국가자묘》, 이 현판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불쑥 이름 못할 걱정이 가슴에 끓어올랐다. 바로 여기에 그토록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던 해외동포들이 고이 잠들고있구나 하는 생각에 나의 걸음은 언덕우에 세워진 묘비들로 향하였다.

수백개에 달하는 묘비들에는 동포들의 돌사진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새겨져있었다. 재미동포 김병주, 재카나다

동포 최기환, 재일동포 박정규, 김음전부부...

그가운데는 지난 기간 취재길에서 만났던 동포들도 있었다. 추억의 편린이나마 조국땅에 묻힌 그들의 생을 되새겨보느라니 나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조국》과 《생》이라는 두 단어가 갈마들었다.

돌이켜보면 해외동포들은 조국이란 이 부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가.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그대로 해방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낯설은 이역땅으로 흩어져간 우리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들속에는 일본땅에서 갓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전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본부위원장 리동준동포도 있었다. 그는 평생 공화국기발을 품에 지니고 민족교육사업에 심혼을 다 바치였다. 다시는 외세에 나라를 빼앗길수 없기에, 민족성을 고수하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민족을 잃을수 있기에 그는 일본우익반동세력의 거듭되는 탄압속에서도 민족교육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게 하였다.

어찌 그뿐만이라.

나라위해 한몸바친 남편의 뜻을 이어 해마다 조국의 주요 명절이면 지성어린 꽃바구니를 안고 평양을 찾곤 하던 로씨야 모스크바시의 정일심동포는 일편단심 참되게 살라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어주신 이름그대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일가》의 가장으로서 애국사업에 헌신하였다.

자신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긍지높이 여기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 길림지구협회 회장 황진생동포는 수십년세월 하루와 같이 길림땅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물들을 정히 보존관리하였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동포들의 단합을 위해, 조국의 부강을 위해 정력을 깡그리 바치였다.

잘나도 못나도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한품에 안아주는 조국, 동포들이 이역에서 외로워할세라 피로워할세라 마음속고충마저 헤아려 풀어주는 조국, 애국의 큰걸음을 내짚을 때면 영웅으로, 애국자로 값높이 생을 빛내여주는 이 품이 너무도 고마워 동포들은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며 민족의 아들딸된 도리를 다해가는것이다.

언제인가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던 80고령의 재중동포 최진실로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생의 흔적이런듯 년로한 몸에 허리가 굽어든 그는 렬차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어푸러져 눈물을 왈각 쏟았다. 수십년세월 어느 하루도 잊은적 없던 너였다고, 너를 떠나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설은 이역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가고 주름진 손으로 땅을 어루쓸던 로인, 그에게 있어 조국은 평생토록 의지해온 마음의 기둥이었다.

조국을 떠나는 날 나를 부둥켜안던 그 로인의 흐느낌소리가 지금도 이 가슴을 허빈다. 길가에 떨어진 락엽을 꼭 그러쥐고 이제 가면 언제 또다시 조국땅을 밟을수 있겠는가 하고 숨이 지면 이 땅에 묻히고싶다고 말끝을 흐리던 그.

나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며

동포들의 묘비들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공화국영웅인 총련의 리길병동포, 조국통일상수상자인 전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리철재동포, 사회주의 애국상수상자인 총련의 김승길동포...

돌사진속의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이제는 우리세대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나라잃은 설움이 무엇인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지 뼈아프게 체험해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당부하노니 부디 그대 선친들의 피를 받은 조선민족이라면 어디에 살든 조국을 잊지 말라, 생이란 세월이 간대도 잊을수 없는 조국에 바쳐진 순간이라고, 그 생은 어머니조국의 기억속에 영원히 빛난다고!

흐르는 세월속에 락엽이 덧쌓인대도 우리 동포들의 애국의 삶은 덮을수 없으리라.

본사기자 홍정혁



해외동포애국가자묘를 찾은 재중동포들  
주체102(2013)년 촬영



# 재중동포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뜻깊게 경축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재중동포들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10일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은 심양주재 우리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가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일군들은 단동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백경현 중남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와 베이징시지부 일군들도 9일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경축좌담회를 가지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료녕지구협회 일군들이 참가한 좌담회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마침내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

로써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짧은 기간에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웠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지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화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이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웃으며 이겨낼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선예술영화 《잊을수 없는 나날에》를 깊은 감명속에 감상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 녀안시지부, 연변지구협회에서도 경축모임, 사진전시회들을 진행하였다.

한편 6일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10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대한 학습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김경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심양시 공민들이 참가한 학습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신데 대한 《로동신문》의 글을 랑독하고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전체 토론회참가자들은 력사적인 시정연설의 기본사상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새 승리를 앞당겨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사회주의 조선의 해외공민된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 11월의 절기와 민속

11월의 절기에는 립동과 소설이 있다.

립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1월 7일이나 8일에 든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르는 소설은 양력으로 11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올해 립동은 11월 7일이고 소설은 11월 22일이다.

이 절기들에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에서 중요한것은 김치담그기와 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김장이 반식량》이라고 하면

서 김치담그는 일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거기에 넣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은 지방마다 각이하였다.

김장철이면 통배추김치와 함께 동치미, 보쌈김치, 갓김치를 비롯하여 지방마다 맛과 향기가 독특한 여러가지 김치를 담그었다.

김치는 여러 가정의 주부들이 모여 한집씩 돌아가면서 담그어주었는데 새로 담근 김치를 이웃들에게 먼저 맛보이는것을 도덕으로 여기였다.

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메주를 쑤는것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대대로 전해

져오는 오랜 풍습이다.

또한 선조들은 이 시기 문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을 손질하며 외양간을 고쳐짓는 등 겨울나이준비도 착실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풍습들에는 깨끗한것을 좋아하고 깐지면서도 근면한 우리 인민의 생활기풍이 반영되어있다.

이 시기 진행한 민속놀이들은 추운 날씨조건에 맞는 윷놀이와 바둑, 장기, 칠교놀이 등 방안에서 하는 유희오락과 어린이들이 즐겨한 연떡우기, 제기차기 등이였다.

본사기자



조국에서는 11월이면 김치담그기가 한창이다. 주체108(2019)년 촬영



# 가야금, 어제와 오늘을 안고 제작되다



둥기당당 등당당...

그 울림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흥취를 돋구어 듣는 사람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민족 악기 가야금.

가야금의 웅글진 가락소리는 독특한 가야금제작방법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이번호에 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근면한 우리 민족이 남긴 비물질 문화유산의 하나인 가야금제작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해전 우리가 제8차 평양 악기전시회장을 돌아볼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락맞게 울려오는 구성진 가야금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전시회에 출품된 가야금들을 직접 타보며 제품의 질을 평가하고있었습니다.

그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강좌장 경남철선생이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조

국에서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이 제작한 가야금을 타보며 매우 기쁘게 생각되는것은 천수백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가야금과 그 제작방법이 오늘날에도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다는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우리에게 여운을 주었습니다.

가야금제작방법과 관련하여 우리는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비물질문화유산연구실 실장 조일경선생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가야금은 1세기중엽부터 6세기중엽까지 우리 나라 남부에 존재하였던 가야국(6개의 소국으로 되어있었다.)의 재능있는 음악가 우륵(6세기초중엽에 활동한 음악가)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야금은 오늘까지 기본상 자기 제작방법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개량되어왔습니다.

초기가야금은 12줄로 된 장방형의 현악기였지만 오늘은 21줄로 늘어나 음역이 보다 넓어지고 음질도 좋아져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이 더한층 두드

리지게 되었습니다.

가야금의 구조는 울림통, 줄, 이동패, 줄베개, 머리, 꼬리, 줄조임못, 다리, 울림구멍 등으로 되어있으며 줄조이개가 따로 있고 줄은 21개입니다.

가야금의 제작과정은 나무선택과 켜기, 말림공정과 제작공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가야금의 앞판은 소리울림을 형성하는 역할에 맞게 목재의 년륜이 비교적 성근 오동나무로 만들며 소리를 반사시켜주는 진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뒤판은 밤나무, 가래나무, 대추나무 등으로 만듭니다.

우리 나라 중세시기의 음악, 무용에 관한 리론저서인 <악학궤범>에는 <가야금을 만드는데 리용되는 오동나무는 산중폭포터에서 30년정도 자란 석상동(바위우에 있는 오동나무라는 뜻)을 제일 좋은것으로 여기었다.>고 썬여져있습니다.

오동나무는 곧으면서도 속이 비지 않은것을 선택합니다.

가야금제작에 리용되는 통나무는 정목판으로 켜야 섬유질의 길이가 잘리지 않아 튼성과 음파의 지향성이 좋아지고 수축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켜 나무는 자연건조 혹은 인공건조방법으로 말리우는데 자연건조를 오래 할수록 질이 좋아 집니다.

가야금은 앞판과 뒤판, 줄조임판, 머리판, 이동패 등 부품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조립합니다. 가야금의 패는 대추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도색은 일반적으로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인화법(인두를 달구어 나무판을 골고루 지진 뒤에 벼짚이나 속새풀로 만든 수세미로 잘 문질러 연마하고 윤기를 내는 방법)을 씁니다. 마감으로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메웁니다.》



가야금의 제작방법은 오랜 기간 일정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전해져왔지만 그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다. 지금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

학 악기제작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야금제작방법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심어주고있습니다. 민족음악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대들에게 민족의 슬기와 재능,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생활감정을 안겨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야금제작기술은

주체106(2017)년 4월 27일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65호로 등록되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상 식

노래와 건강

노래를 부르면 일상적인 몸단련에 못지 않은 좋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노래를 부르면 심장과 폐가 단련된다.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더 세게, 더 깊이 하게 되어 호흡량이 증가될뿐 아니라 가슴 부위의 근육이 단련되어 흉곽의 확장을 세계 하며 심장박동도 높아지

게 된다. 노래는 또한 심리건강에도 좋고 정신과 지력을 높여준다. 노래는 사람들의 심정을 평온하게 하여 불안과 고독감을 쫓아버린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 음정을 정확히 찾고 가사를 기억하는것은 대뇌의 기억력을 높이는 좋은 단련으로 된다.

또한 노래를 부를 때 입술과 입천정을 쳐들게 되므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근육과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노래를 자주 부르는것이 좋다. \* \* \*

상 식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전해져내려온 봉건시기의 여러 무술동작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옛 무술도서이다. 《무예도보통지》는 문자그대로 무예를 그림으로 해석한 책이라는 뜻으로서 1790년 4월에 간행되었다.

책은 각종 칼쓰기와 권법, 창쓰기, 곤봉쓰기 등 여러가지 무술동작들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동작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전해지는 조상전래의 전통적인 무

술동작들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무예도보통지》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무예도보통지》는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어있다. \* \* \*

# 리재관과 《약산초상》

조선봉건왕조시기 이름난 화가들중에는 초상화를 잘 그리는 유명한 리재관(1783년-1837년)도 있다.

산수, 인물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그림을 다 잘 그린 그는 특히 초상화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스승의 가르침도 없이 혼자 힘으로 그림을 익혔지만 그는 당대 화단에서 손꼽히는 화가로, 우리나라 초상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되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조선화 《약산초상》이 전해오고 있다.

등근 기의 관복에 사모관대를 쓰고 앉아있는 주인공 약산의 얼굴은 매우 생동하며 진실감을 준다. 선묘법과 우림법을 배합하여 얼굴의 골격과 근육조직의 생김새에 맞게 명암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립체감을 살려냄으로써 대상의 형태상특징들을 섬세하게 표

현하였을뿐 아니라 봉건도덕과 선비생활의 관습으로 굳어진 성격적특징까지도 잘 드러내보여준다. 또한 얼굴부분과 대조되게 몸체부분을 대담하게 생략하여 간결하게 하고 함축된 몇가닥의 세련된 선으로 체구의 량감과 옷의 질감을 실감있게 그려냄으로써 구도의 중심을 이루고있는 얼굴형상의 표현성을 조형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림은 조선화의 풍부한 표현력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회화유산으로서 당대 우리 나라 초상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의 이름은 이웃나라들에도 알려져 리재관의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도 있다. 리재관은 우리 나라 초상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하여 조



약산초상(40.5×64cm)  
비단·채색

선미술사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본사기자

# 함경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 해월정 -



해월정의 처마

함경남도 홍원군에 있는 해월정은 17세기의 루정이다.

루정은 절개를 지켜 바다물에 자기 몸을 던진 한 너인에 대한 애달픈 전설이 깃들어있는 홍원의 절부암우에 서 있다.

해월정은 본래 6각건물이었는데 지금 있는것은 정면 3간, 측면 2간의 4각건물이다.

나지막한 기단위에 흘림기둥을 세우고 2익공두공을 엮어 겹처마의 합각지붕을 떠받들게 하였으며 모루단청을 입혔다. 그리 크지 않지만 5도리집이며 중도리 높이에 소란반자를 뒀다.

바다가의 벼랑우에 서있는 해월정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아름답다.

가없이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그아래의 경포만을 멀리 끼고돈 산봉우리들,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검푸른 바다와 그우에 점점이 떠있는 어선들, 말그대로 하늘과 산과 바다가 하나로 조화되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해월정은 현재 국보적건물로 잘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 있다.

본사기자

## 상 식

### 굴포리 서포항유적

굴포리 서포항유적은 라선시 굴포동에서 드러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겹놓인 유적이다.

유적의 범위는 약 4 000㎡에 이르며 여러 시기의것이 겹놓여있는 문화층의 두께는 4m에 달한다.

구석기시대문화층으로는 2개 층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구석기시대중기(10여만년전)와 후기(4만~3만년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립시거처로 짐작되는 막자리와 그들이 쓰던 석기들이 드러났다.

서포항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문화층우에 퇴적되어있는 조개무지에서 신석기시대문화층들도 발굴되었다.

여기에서는 여러 형태의 집자리들과 질그릇, 농기구, 치레거리물 비롯한 수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서포항유적의 조개무지에서는 청

동기시대문화층도 드러났다. 여기서는 9개의 집자리와 2개의 무덤을 발굴정리하였다.

굴포리 서포항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구석기시대전기부터 중기, 후기를 거쳐 련면히 살아오면서 창조적인 로동을 통하여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 \* \*



## 황해남도의 일부 지명들 (2)

(전호에서 계속)

황해남도에는 구월산과 장수산, 재령강과 재령벌, 연백벌과 달천온천을 비롯하여 조국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명승, 명소가 많다. 이 이름들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구월산은 단풍든 9월의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그로부터 유래된 이름이다.

구월산의 단군봉과 단군대, 아사봉, 사황봉 등 많은 곳에는 단군과 관련하여 불리우는 이름들이 있다.

백운대가 그 대표적이다.

먼 옛날 아사봉골안에 있는 대궐마루에 백발의 단군이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보며 깊은 생각속에 앉아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흥안의 열정으로 주변종족들을 통합해가던 일들이며 민족의 첫 국가를 세우고 국가체계를 하나하나 완비해가던 나날들이 추억깊이 떠올랐다. 그러던중 이제는 나이많은 자기도 조상들이 있는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미처였다.

다음날 아침 구월산의 제일봉인 사황봉으로 올라간 단군은 하늘을 향하여 목청껏 소리쳤다.

《존귀하신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저도 하늘나라에 가고저 하나이다. 부디 굽어살피시여 저를 데려가주소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래일 사황봉꼭대기에 룡마차를 보낼터이니 그걸 타고오너라.》라는 우렁우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사황봉에 올라 잠시 기다리자 다섯마리의 룡마가 끄는 수레가 하늘에서 날아 내려왔다. 순간 흰구름이 사황봉을 둘러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후 구름이 걷히었을 때에는 단군과 룡마차는 보이지 않고 단군이 신었던 신발만이 바위위에 놓여있었다. 바로 그때 흰구름이 봉우리를 감싸고 단군을 하늘로 올려보냈다고 하여 바위를 백운대(흰구름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황해남도에는 산에 약초와 약수가 많아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하여 이름지어진 장수산도 있다. 이 이름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통치하던 시기 이 일대가 가장 번창하였다고 하여 장수산으로 부른다는 뜻도 있다.

장수산에는 유명한 장수산성

이 있다. 이 성에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과 갑오농민전쟁(1894년)을 비롯하여 선조들이 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민족의 기개를 떨친 자랑찬 일화들이 깃들어있다.

도에는 해주신8경과 해주구8경, 연안8경, 장연8경, 은률8경 등 예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난 아름다운 경치가 많다.

대표적으로 은률8경만 보아도 단풍이 붉게 타는 구월산의 가을경치(구월단풍), 사황봉마루의 보름달 솟는 경치(사황로월), 물갈기를 날리며 떨어지는 룡연폭포(룡연비폭), 은은한 정곡사의 종소리듣기(정곡요정), 봄빛 어린 한천기슭의 수풀구경(장림춘색), 무연산의 저녁노을(무연락조), 조산벌의 벼풍년(조산황도), 웅도에 돌아오는 배들의 흰 돛구경(웅도귀범)은 볼수록 장관이다.

황해남도의 삼천군 달천리에는 관절염, 신경통, 부인병, 고혈압치료에 효능높은 달천온천이 있다. 이 온천은 먼 옛날 달래라는 소녀가 물을 떠다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였다고 하여 달래온천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다리부러진 종달새가 샘물에 뛰어들어 병을 고쳤다고 하여 종달온천으로도 불리워왔다.

이밖에도 월정사와 폐엽사를 비롯하여 도안의 많은 력사문화유적들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애국심과 련관된 유래가 깃들어있다.

(끝)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서학순

## 평양에서 울고 간 시인

고려(918년-1392년)의 이름난 시인인 김황원(1045년-1117년)은 조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자연풍경에 대한 시를 많이 남기었다.

어느해 여름 평양의 아름다운 산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모란봉 부벽루에 오른 그는 청류벽과 평양성을 감돌아흐르는 맑고 푸른 대동강, 연한 안개속에 가없이 펼쳐진 벌을 바라보다가 절경에 심취되어 한동안 넋을 잃고 서있기만 하였다.

《아, 세상에 이런 절경도 있단 말인가!》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름난 시인이 평양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평양의 관리들과 선비들이 김황원을 만나자고 부벽루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인에게 평양의 절경을 노래한 명문장을 하나 남겨달라고 청하였다.

김황원은 부벽루의 기둥과 천정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글들을 훑어보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개탄하였다. 그것들은 어느 하나도 평양풍경을 방불하게 그리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김황원은 찾아온 관리들과 선비들에게 자기가 평양의 절경에 대한 시를 남길터이니 저런 어지러운 글들은 모조리 떼버리라고 하였다. 더욱이 부벽루기둥에 한팔로 의지하고 시상을 고르던 시인은 마침내 붓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는 여러 사람들이 뻘뻘이 둘러서 내려다보는 가운데 붓을 쥐고 달려였다.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동두 점점산  
(긴 성벽기슭으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 있네)

이렇게 단숨에 쓰고난 시인은 더 붓을 놀리지 못하였다. 그는 붓을 천채로 부벽루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다시 비단폭우에 쓰러했으나 붓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부벽루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동강의 맑고 푸른 물을 보느라하면 마치 바다위에 솟구쳐올라온



《룡궁》의 정자에 서있는듯싶었고 멀리 안개에 묻힌 벌을 바라보느라하면 구름우에 떠있는 《천궁》의 란간에 서있는듯하였다. 보면 볼수록 새로와지는 풍치를 몇련의 시구로는 도저히 읊길수 없었던것이다.

김황원이 두 구의 시를 써놓고 붓방아를 찧기 시작한지도 오래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시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만이 비단폭을 적시게 되자 모여섰던 사람들이 한둘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해가 저물고 황혼이 비기는 부벽루에 홀로 앉아있게 된 시인은 그만 붓을 꺾어버리고 마루바닥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 평양의 절경을 그려내기에는 내 재능이 모자라누나!》

시인은 이렇게 한탄하며 그곳을 떠나갔다.

그후 평양사람들은 그가 쓰다만 시를 부벽루의 기둥에 걸어 전해오다가 오늘은 련평정의 기둥에다 옮겨놓았다. 그것은 쓰다만 시가 잘되어서만이 아니라 이름난 시인도 시어가 모자라 못다 노래한 평양, 평양의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자랑하려는 념원에서였다.

\* \* \*

유모아

### 힘이란 무엇인가

어느 대학에서 입학시험생이 구답시험을 치게 되었다.

초조하게 앉아 질문을 기다리는 그에게 머리원 로교수가 물었다.

《...그래, 힘이란 무엇이요?》

알듯말듯한데 똑똑한 답을 찾지 못해하는 그를 교수는 병밀굽같은 두꺼운 도수안경너머로 실눈을 짓고 바라보고있었다.

얼마후 당장 잡아먹을 기상으로 로교수를 쏘아보던 그 수험생이 별안간 두주먹으로 책상을 짱 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바람에 화들짝 놀란 로교수도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힘이란 바로 이런것입니다.》

\* \* \*

# 명승 경암산

경암산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다.

력사자료 《봉산읍지》에 의하면 옛날에는 경암산의 이름을 봉황산이라고 불리왔다.

그것은 산의 북쪽끝에 봉황새의 변두와 같이 생긴 벼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기때문이었다. 그러던것이 오늘에 와서

경암산이라고 부르고있다.

경암산은 높지 않으나 주변이 평지대로 되어있어 특별히 우뚝 솟은감을 준다.

경암산은 풍화작용으로 깎이우고 씻기여 매바위와 같은 기묘한 바위가 솟아있는 북쪽비탈면이 비교적 급하고 그밖의 비탈면은 느리다. 남쪽으로 뻗은

릉선은 점차 낮아지면서 미아산과 잇닿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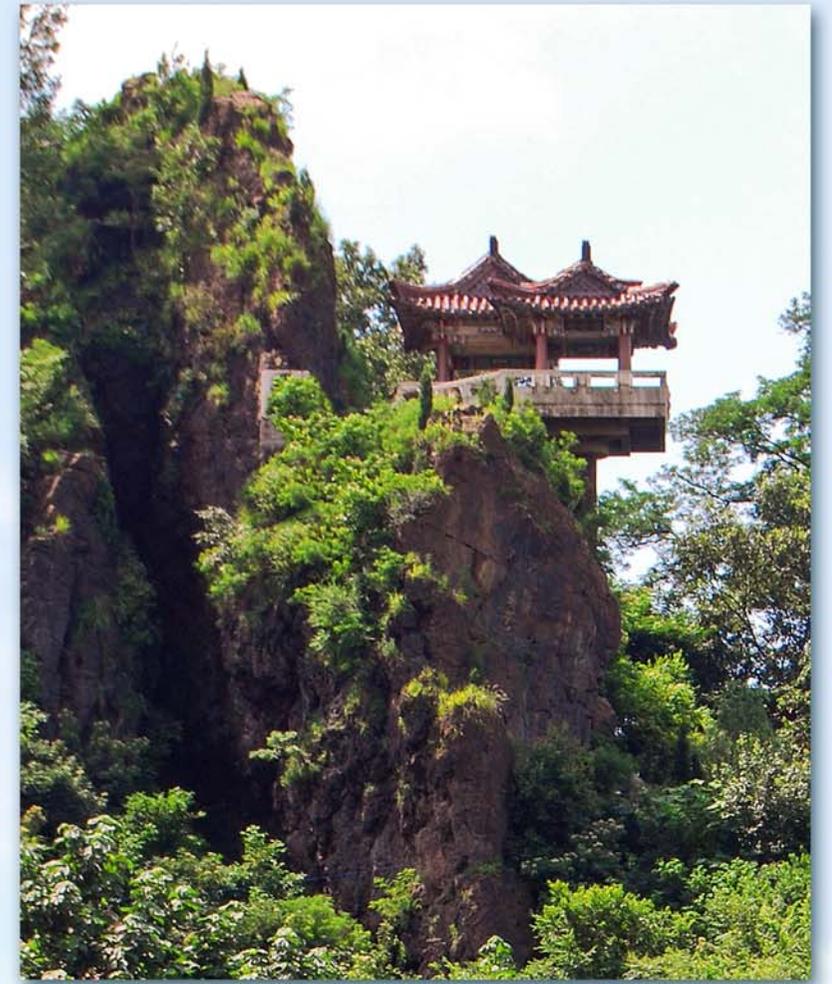
경암산은 봄철에는 연분홍살구꽃과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어느곳에서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과도 같고 록음우거진 여름철은 물론 매바위와 한데 어울리며 붉게 물든 가을철의 풍경 또한 아름답기 그

지없다.

경암산은 자연풍치도 좋지만 사리원시의 면모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외에도 경암산 북쪽기슭에는 건축구성과 수법이 뛰어난 경암루가 자리잡고있어 경암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현재 경암산은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주체108(2019)년 촬영



벼바위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mailto:flph@star-co.net.kp)

